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겔 37:15~17)

“15.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37:15~17)

1. 본문의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자초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남유다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제국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겔 37:16-17,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터인데 그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여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저항할 만한 군사력이나 조직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대로 메대 바사제국이 등장하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 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내림으로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시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회복하여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 남북한이 분단된 지 76년

1910년 일본이 강제로 한일합방 함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UN 연합군에게 패망함으로 한반도는 36년간의 일본 식민지배가 끝이 나고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은 러시아가 남은 미국이 신탁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남침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전사자들과 미망인과 고아들이 발생하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강력하

게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여 성공단계에 이르러 현재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이유는 김씨 일가 공산 독재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래가 없는 3대 세습을 추진해오면서 민중들의 인권과 자유를 말살해 왔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의 경제는 처참할 정도가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2016년 기준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는 45배입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45배 경제력이 높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전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50개국 순위를 발표하는데, 북한은 지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18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서 전세계에서 해외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전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3. 남북한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8.15 해방 전만 하더라도 한민족은 하나였습니다. 언어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였고 나라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식민통치하던 일본이 패망하면서 강대국들에 의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념으로 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외형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내용적으로는 3대 세습 독재를 하면서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인권과 자유는 철저히 말살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들로 마땅히 인권이 존중되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한반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곳은 북한이었습니다. 중국과 근접한 평북 의주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성경번역에 참여했던 서상륜, 백홍준 등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의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의주공동체가 세워졌고 빠른 시간에 평안북도에 복음의 확산되어 평양, 의주, 선천, 정주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확산되었으며, 후에 평북노회의 1개 군에서 단독으로 용천노회가 분립 될 정도로 북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8.15 해방후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처형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남으로 남으로 피난 내러오면서 남한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너졌던 북한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북한에 숨어 지내는 기독교 신앙의 그루터기들을 찾아내고 교회들을 재건하여 북한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한국 예수전도단(YWAM) 창시자인 오대원 목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장차 예수를 믿게 되면 세계 오지 어디에 가셔도 극한상황에서 생존하면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람보다 더 북한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4.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겔 36:37,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

제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드시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38.9%가 긍정적으로 답했을 뿐입니다. 참고로 50대는 65.3%, 60대 이상은 71.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도 흥미롭습니다. 20대의 경우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에 불과했습니다(50대는 36.2%, 60대 이상은 47.3%). 그래서 교회에서 통일교육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성도들이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북한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